

“호흡 하나만 잘해도 삼매에 들 수 있어”

불교학연구회 ‘불교 수행전통과 호흡’ 추계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는 12월 5일 동국대 경영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의 수행전통과 호흡’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에서는 총 5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와 밀교에 이르기까지 호흡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이필원 동국대 교수가 ‘초기불교의 호흡수행법’ △김치은 진각대 교수가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 의 입출식관’, △이기운 동국대 교수가 ‘천태지관법문에서 호흡법의 수행체계와 수행’ △김영덕 위덕대 교수가 ‘진언과 호흡’ △김재성 능인불교대 교수가 ‘테라와 다불교의 호흡수행’ 등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이필원 교수는 <입출식념경>을 중심으로, 응용명상프로그램인 MBSR, MBCT와 같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고찰했다.

이 교수는 기존 호흡관련 연구와는 달리, 초기경전 속에 나타난 호흡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 호흡수행의 유래와 방법, 수행론적 특징, 호흡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그리고 심리치료적 효과로 내용을 분류

시대별 불교 속 호흡법 살펴 호흡수행 유래와 방법 공개

하고 그동안 간과되어 온 호흡수행의 다종적이며 다양한 위상을 확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치은 진각대학교 교수는 <유가사지론> 중 ‘성문지’의 입출식관의 내용과 5종 수행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성문지’ 제2유가처에서 소연을 설명하는 4종 소연 중 두번째에 해당하는 정행소연의 5가지 관법에 주목했다. 정행소연이란 수행자의 나쁜 소행인 탐·진·치를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는 5종의 소연인 부정소연, 자민소연, 연생연기소연, 계차별소연, 출입식념소연 등을 논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맡은 안성두 서울대 교수와 김재권 능인불교대 교수는 성문지 입출식관의 5종 수행이 수행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기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천태지관법문에서



이이필원 김치은 안성두 김영덕 김재성

호흡법의 수행체계와 수행’에서 초기불교부터 대승까지 이르는 호흡수행법을 천태대사가 차제, 원돈, 부정의 체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시켰음을 예를 들었다. 네 번째 발표자인 김영덕 위덕대 교수는 ‘진언과 호흡’을 통해 진언의 효과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진언에는 언어적 기능과 함께 호흡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 두 기능의 조절에 의해 수행의 체계를 잡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진언은 진언이 지니는 언어적 기능을 떠났을 때에 진언이 목표로 하는 궁극에 도달한다. 호흡마저 있어버리고 파동에 일치할 때에 일체 분별을 초월해서 자재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과정에서 호흡과 관련된

진언의 염속방법이 필요하며, <대일경소>에서 이와 관련된 체계화된 차제적 수행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테라와다 불교의 호흡수행’에서 테라와다불교는 <입출식념경> <대념처경> 등 초기경전과 청정도론에 의거하여 실천되고 있음을 말했다. 김 교수는 “마하시 전통은 호흡에 의한 복부의 움직임과 감각을 관찰하고 순론 전통은 호흡이 닿는 곳의 감각과 온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순수 위빠사나로 실천된다. 레디 사야도 계통의 고연까 수행에서는 근접삼매를 통한 위빠사나를 닦는 방법 실천된다. 파유헌에서는 4선을 위한 사마타 수행법으로 호흡수행이 실천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인덕원과 인재양성 MOU

동국대(총장 보광)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이 인재양성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종호)은 12월 9일 동국대 대강전에서 인덕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수여, 인턴십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국대와 인덕원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님은 “교육 및 사업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불교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운님은 속리산 법주사에 동진출가해 해인사, 화엄사 등 선원에서 수



(왼쪽부터) 동국대 불교대학장 종호님과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님이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행했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창립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만해대상, 포교대상 등을 수훈했다.

인덕원은 1994년 삼천사 주지 성운님이 지역복지에 대한 원력을 품고 세운 법인체다. 진관동의 노인전문요양원을 근간으로 법인직영기관 20개, 위탁 운영기관 16개를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연구원, 제1차 불교특별강좌 개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불자들의 교양 증진 및 폭넓은 불교이해 진작을 위해 2016년도 제1차 불교특별강좌를 서울 종로 동화문로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실시한다.

이태승 한국불교연구원장(위덕대 교수)의 ‘인도철학과 불교’가 1월 4일부터 2월 29일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에 열리며 원영상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원(원광대 교수)의 ‘일본불교의 구조적 이해’가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각각 진행된다. 수강료는 교재비를 포함해 각 강좌당 10만원이며,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구도회 소속 회원에게는 수강료 50%가 할인된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도선사, 정보문화재 중심 사지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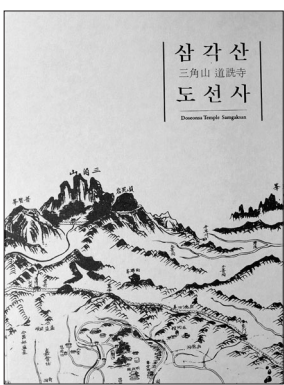
옛 기록 및 청담대종사 관련 유물 집대성

서울 도선사(주지 도서)의 정보문화재를 중심으로 다룬 학술보고서 형식의 사지가 발간됐다.

지난 7월 도선사가 불교문화재연구소에 의뢰해 5개월간 제작한 <삼각산 도선사>는 사찰관련 기록을 비롯해 정보문화재의 디지털 고화질 촬영 및 3D스캔, 중요문화재에 대한 학술논고 작업 등을 거쳤다. 또한 청담기념관에 소장하고 있는 청담대종사 관련 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장유물의 정확한 수량 및 보존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했다.

더불어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청담기념관 유물 전수조사 과정 중 발견·수습한 ‘관음보살좌상’과 ‘보장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연구소는 함께 수습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관음보살좌상이 1670년에 조각승 승호·상륜·자운·응진·탁매에 의해 조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 스님들은 주로 호남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이 서울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도선사와 연구소는 향후 지정문화재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선사는 이번 사지 발간을 위해 여러 사찰의 사지를 비교·분석했다. 이 과정



을 통해 사지로서 계승할 부분은 담아내고, 현대적 성격을 반영하기 위해 성보물과 인연이 있는 불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책은 삼각산 도선사 △도선사의 중요문화재 △도선사와 청담 스님 △도선사의 기록자료 △참고문헌으로 구성돼 있다.

도선사 주지 도서 스님은 “사찰의 기록을 남기는 일은 어떠한 불사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삼각산 도선사> 발간이라는 대작불사를 통해 도선사 천 년의 역사와 정보문화재, 자비무적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효암 목조관음좌상, 삼존불 복원 가능”

12월 10일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학술대회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유물은 조선시대 전통복장 방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범어사(주지 수발)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12월 10일 부산 동아대 부민 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개최됐다.

학술대회에서 동아대 석당박물관 정은우 관장은 기초발표에서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의 특징에 대해 고찰했다.

정 관장은 “목조관음보살상좌상의 복장 유물은 1674년 제작 이후 처음 개봉된 것이다. 보관이 완벽하며 조선 시대 복장 유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면이 있다”며 “특히 불상 시주자, 보관 시주자, 좌대 시주자 까지 일일이 적혀 있다. 이것은 시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불교의 정신을 추측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관장은 “복장 발원문을 분석하면 목조관음보살상은 1674년 함양 영인사에서 제작됐다. 원래 아미타삼존불로 써 보존받은 함양 백운암에 계신 목조아미타여좌상”이라며 “나머지 협시보살상 1구 역시 어느 사찰에 봉안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청 이희정 문화재감정사는 ‘목조관음보살좌상연구’를 통해 원효암 목조보살좌상이 1674년 조각승 성조가 제작한 불상임을 설명했다.

이어 윤상기 동의대 교수의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전적’, 이수에 사찰문화재연구소 이사장의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조사와 보존처리 방안’ 등이 발표됐다.

특히 이수에 이사장은 방사선 촬영, 3D 정밀 스캔을 이용한 제작기법 복원, 수중 분석을 통한 재질 파악, 성분 분석을 통해 목조관음보살좌상의 향후 보존처리방안을 제안했다.

하성미 기자

제5회 반야학술상 시상, 윤종갑·윤소희 박사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에서 수여하는 제5회 반야학술상 시상식이 12월 6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상자는 윤소희 박사와 윤종갑 부산대 교수다.

저역상(著譯賞)을 받은 윤소희 박사는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이란 논문 제목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음악적 뿌리는 종교음악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논리로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와 불교음악의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종갑 교수는 <반야중관 경론에서의 번뇌론>이란 제목으로 논문상을 받았다. 국내 최초로 반야중관의 번뇌론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중요성을 인정 받았다.

윤소희 박사의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은 심사 대상에 오른 총 6편의 논문 가운데 선정 됐으며 윤종갑교수의 <반야중관 경론에서의 번뇌론>은 동아시아불교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에서 수여하는 제5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문화학회 지인 <동아시아불교문화> 20~23집에 실린 논문 10편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지안스님은 “사찰은 수행과 신앙의 중심공간을 넘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지식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불교의 선법이 전달되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성인들의 역할이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 60팩
80ml×60팩 (IBOX)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이다.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이다.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 치유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의 : ☎ 02)393-8027

개인지도 및 단체명상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범패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처명)